

2023. 12. 1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

구조대책팀장	이 낙 규	02-3706-1421
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사진있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담 당 자	오 창 훈	02-3706-1422
	주 원 철	02- 3706-1425

서울시, 겨울철 한파 대비 긴급구조 및 구급 대책 추진

-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긴급 구조·구급대책 추진
- 현장밀착형 119순회 구급대 운영, 월동장비 완비 등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
- 특보 발령시 소방기관 상황실을 통한 피해상황 전파 및 한랭질환자 이송 관리 등 나서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긴급 구조 및 구급대책을 추진한다”라고 밝혔다.
-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△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체계 구축 △신속한 현장출동 태세 확립 △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△정전 시 긴급 대응대책 등이다.
- 우선 현장밀착형 ‘119순회 구급대’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한랭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응급처치 등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구급차에는 한랭질환자 응급처치용 생리식염수, 모포, 핫팩, 정맥주사세트 등 구급장비 및 물품이 상시 비치된다.

- 또한 폭설·도로결빙 등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월동장비를 소방차량에 적재하고, 출동차량 결빙방지를 위한 유지 관리도 철저히 한다.
- 이와 더불어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는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령되면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관리인력을 투입한다. 이를 통해 실시간 특보상황 전파, 재난취약계층 안전지원, 한랭질환자 이송 상황관리에 나선다.
- 이 밖에도 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승강기 갇힘 사고 등에 긴급 대응을 위해 119구조대 외에도 발전차 2대도 동원할 계획이다.
-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혹한기 한강 수난사고 대비 빙상구조 및 수중 탐색훈련,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겨울철 사고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.
- 현진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“겨울철 한파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 가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”며 “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조·구급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(별첨) 관련사진.